

시니어세대의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길대호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정화영

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회계과 교수

The Affects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 Generation

Dae-Ho Gil^a Hwa-young Jeong^b

^aDepartment of Convergence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Management Account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19, Revised 10 June 2019, Accepted 18 June 20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influence of the entrepreneurship of the senior generation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t a time when the senior generation cannot lead to technology start-ups or reemployment even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will to start a business and use social and intellectual capital to verify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is study shows that entrepreneurship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intellectual capital and no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will to start a busines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to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was significant and the intellectual capital was not significant i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Even if entrepreneurship is embedded, it means that experience and network of social and intellectual capital are essential to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rather than to start one right away.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llectual Capital, Social Capital, Senior Generation.

JEL Classifications: M10, O34

^a First Author, E-mail: kildh@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y555@hanbat.ac.kr

© 2019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오늘날 시니어세대들이 은퇴 후 기술창업이나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소 손쉬운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OECD(2017)자료에 의하면 주요 국가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 6.3%, 캐나다 8.3%, 독일 10.2%, 일본 10.4% 등의 주요국 대비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5.4%로 약 2.5배~4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UN(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기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kostat.go.kr/, 2017). 특히 우리나라는 5060 세대들의 때 이른 은퇴와 퇴직이 장·노년 일자리 시장의 부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5060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자신의 힘으로 새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5060은 여전히 생산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다. 급작스런 퇴직 혹은 예상보다 빠른 은퇴에 직면한 이들 5060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과 창업지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만큼이나 절실하다.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소비 활동이 저하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창업이 늘고 있다. 올 들어 1분기 신설 법인 수가 2만 6951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50대와 60세 이상의 법인 설립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장·노년 '창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060 세대를 중심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크로스 제너레이션'(cross generation)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

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시니어세대의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두고, 시니어세대의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기업가정신이 지적자본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통계학적으로 연구 검증함으로써 시니어세대의 기술적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의지 관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의정의

창업이란 ①창업자, ②아이템(업종), ③창업자금의 3가지 구성요소가 결합된 개념이다 (Kim Young-Ki and Seung-Woo Han, 2015; Kim Ju-Cheol, 2016). 창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생산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Jong-Jae, 1991; Kim Ju-Cheol, 2016).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창업자, 창업자금, 업종을 결합하여 생산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창업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①아이디어단계, ②창업 트렌드관찰 및 분석, ③창업기회발견, ④BM수립, ⑤사업타당성분석, ⑥사업계획서 작성, ⑦창업시작 등 7단계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Kim Young-Ki and Seung-Woo Han, 2015; Kim Ju-Cheol, 2016). 사전적으로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간단하

게 직업의 변경이나 현재의 직업에 더하여 부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는 것이다 (Kim Young-Ki and Seung-Woo Han, 2015; Kim Ju-Cheol, 2016). 법률상으로 창업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Revised the Act on Support for Small Business Startups, 2016). 최근 각 나라에서는 시니어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로 시니어 창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시니어 창업의 결정요인 등을 설명하고 있다 (Kim Jin-Soo and Seong-Chang Soo, 2011).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와 50대 고령자(55-59세)와 60대 초반(60-65세)은 65세 이상 노인인에 비해 건강, 사회적 인식, 주관적 인식, 경제활동 능력 등 소득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정년퇴직이나 정년 후 계속 고용 등의 대상으로 하였다(Lee Soon-Jae, 2014).

2.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어원은 수행하다, 시도하다, 모험하다는 불어의 *entreprendre*에서 유래되었다. 기업가정신은 Schumpeter (1936)의 연구를 기점으로 개념적 정의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및 진취성(proactiveness)을 실현하는 일련의 기업가적(entrepreneurial) 행위 또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umpkin and Dess, 1996; Go Gwang-Man, 2012).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업문

화, 협력전략, 중소기업의 국제화, 창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략개발과정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기업 내의 구성원인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기업수준의 현상이라 보고 있다(Yoon Ki-Chang, 2009). Timmons (1990)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 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인 행동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으며, 그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Covin and Slevin (1991)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가의 행동 접근은 기업가의 행동 효과성을 성과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즉, 이들은 기업가적 전략 태세(entrepreneurial strategic posture)로 정의하고 최고 경영진의 사업관련 위험의 감수와 기업의 경쟁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과 변화를 선호하며 다른 기업과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성향을 가진 행동 접근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Lumpkin and Dess (1996)는 Covin and Slevin (1989)의 연구에서 나타난 혁신성, 사전 대응성, 위험감수성 등 세 가지 하위 차원에 자율성과 경쟁적 공격성을 더한 다섯 가지 차원으로 기업가정신을 설명하였다 (Kang Young-Gyu, 2010).

1) 혁신성

Covin and Slevin (1991)에 의하면 혁신성은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환시키는 과정으로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영 활동으로 나타내었다. 혁신성(innovativeness)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모든 물적 요소와 힘을 새롭게 결합하는 신 결합으로 경제주체인 기업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Schumpeter (1950)는 조직이 기술혁신을 강조하거나 제품시장이 혁신으로서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정혁신관리관행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관리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Guth and Ginsberg (1990)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혁신, 모험, 전략적 갱신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혁신은 새로운 상품 생산과정 및 조직 시스템 등의 도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모험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 하는 것, 전략적 갱신은 자원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았다. 많은 연구들에서 혁신성은 소비자에게 획기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획기적으로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공정 개발을 위한 일체의 활동으로 종합화할 수 있다.

2)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전부터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위험감수성과 관련지어 200여 년 전에 이미 기업가를 자신의 자본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을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Kang Byung-Oh et al., 2010). Sexton and Bowman (1986)은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 정도로서 위험에 무관심하고 위험을 즐기는 정도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

Covin and Slevin (1989)은 위험감수성을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보았으며 여기서 위험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모한 위험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예측,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감

수 자체가 아닌 위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려는 태도라고 보고 있다. Kim Yoon-Jeong and Sang-Yong Park (2004)은 불확실한 시장상황과 취약한 인적·물적 상황 속에서 커다란 시장기회를 창출하려는 CEO의 의지와 경영기조라고 하였다.

Park Ki-Yong (2009)은 위험감수성을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불확실한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의사결정 활동과 이에 자원을 몰입하는 활동으로 종합적인 정의할 수 있다.

3) 진취성

진취성(proactiveness)은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 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시장 내 지위를 바꾸기 위해 경쟁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포함한다(Lumpkin and Dess, 1996). Park Sang-Yong and Yoon-Jeong Kim (2004)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사의 반응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라고 하였으며 Lee Chun-Woo (1999)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부응하려는 경영활동이라고 하였다. Park Ki-Yong (2009)의 경우 진취성을 사전 대응성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경영활동으로 나타내었다. Kang Byung-Oh and Jin-Soo Kim and Sung-Sik Ahn (2010)의 연구에서는 다른 기업가보다 공격적으로 경쟁하며 단순히 경쟁자들의 행동에 대응하기 보다는 자신이 먼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관리기법 등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취성에 대한 정의는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주

도적인 역할을 새로운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 모색과 대응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혁신성이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또는 공정(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로서 새로운 것을 기꺼이 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감수성은 예측 가능한 결과의 지식 없이 실행하는 의사결정 활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인 자원의 몰입을 포함하는 실행을 의미한다. 진취성은 미래 수요의 측면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진 선도자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3. 사회적자본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은 그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대체로 사회적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분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과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0). 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분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상호간의 지속적인관계인 네트워크로써 비롯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분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인 네트워크로써 비롯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적인 네트워크는 상호 친밀성내지 인적 관계로 어느 정도 제도화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Chey Kee-Jo, 2009). Putnam (1993)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협조를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신

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말한다고 한다 (Chey Kee-Jo, 2009). Mattessih and Monsey (1997)는 사회적자본 요소를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으로, Coleman (1998)은 의무감과 경계성으로, Adler and Kwon (2002)은 신뢰와 규칙으로, Park Hee-Bong (2009)은 기업 간의 성과측정으로서의 사회적자본 구성요소를 호혜성 규범, 신뢰와 네트워크로 제시하고 있다. Seiber et al. (2001)은 네트워크를 자아에 의해 규정된 집단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패턴으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이 알고 있는 모든네트워크가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자아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Lee Seung-Bae, 201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그 본질을 정의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자분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를 통해 유추하고 있다(Moon Young-Ju, 2011). 이러한 사회적 자분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Bourdieu(1986)과 Nahapiet and Ghoshal (1998)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와 호혜적 규범을 제시하였고, Coleman (1988)은 신뢰와 규범을 제시하였으며, Putnam (1993)은 신뢰, 호혜적 규범 및 네트워크를 구성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와 신뢰 및 호혜적 규범을 사회적 자분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Coleman (1988)은 신뢰(trust)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정의하고 있고, Uslaner (2005)는 사회적 자본이 가치체계, 특히 사회적 신뢰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사회적 자분을 정의할 때 신뢰가 핵심적인 개념요소임을 밝히고 있다(Soh

Jin-Kwang, 2004). 신뢰는 지식 및 정보의 교환과 공유, 의사소통의 원활화, 각종 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신뢰는 잠재적 생산성과 사회적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Moon Young-Ju, 2011). 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s)이 개인 또는 집단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호혜적 규범은 공유된 언어와 행동 양식, 조직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교환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에 상황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Moon Young-Ju, 2011; Kim, Yong-Hak, 2007). 따라서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Bourdieu(1986)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Coleman (1988) 신뢰, 호혜적 규범 Putnam (1993)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Nahapiet and Ghoshal (1998)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 공통 요소로 호혜적 규범, 신뢰,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Lee Seung-Bae, 2013).

4. 지적자본

Edvinsson and Malone (1997)은 지적 자본(knowledge capital/intellectual capital)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과 전문적 스킬, 조직의 기술, 고객 관계”라고 하였으며, Roos and Roos (1998)는 “경쟁우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기업의 숨겨진 자본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는 Brooking (1996)은 “기업의 장부상 가치와 누군가가 그 기업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수와의 차이”로 정의하기도 한다. 지적자본은 경제, 경영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정의 및 범위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적 자본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취급된다. Skandia의 지식자산을 최초로 측

정하였던 Leif Edvinsson (1996)은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비재무적 자산(non-financial capital), 비물질적 자산(immaterial asset), 숨은 자산(hidden asset), 보이지 않는 자산(invisible assets), 목표성취를 위한 수단(means to achieve target), 시장가치(market value, MV)에서 장부가치(book value, BV)를 차감한 것과 같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Kang Youn-Sun, 2017). 지식자본의 범위는 광의의 무형자산(기업이 금융자산과 유형자산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자산) 중에서 지식, 정보, 혁신, 지식재산, 노하우와 같은 미래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intellectual material’ (Edvinsson and Malone, 1997; Bounfour, 2002; Brooking, 1996; Roos et al., 1997)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의의 무형자산보다 작고 협의의 무형자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12). 지식은 조직 구성원 간에 공유되며 조직의 역사와 경험과 연계되어 숙련도, 역량, 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직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직의 성장이나 발전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지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객자본은 외부 고객 및 공급자와의 관계, 산업에서의 네트워크, 유통채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Park Sung-Sup (2001)은 고객충성도, 브랜드, 로열티, 시장 점유율, 고객유치율, 고객당 수익률 등 고객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고객 자본이라 하였다 (Lim Gyu-Chul, 2007). 즉,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 등의 고객 자본은 기업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주는 귀중한 무형자본이다 (Lee Do-Yeon, 2000). 구조적 자본(structural capital)은 인적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조직 프로세스 및 구조, 기술이나 정보시스템, 지식재산권, 경영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Lee Ho-Gil, 2003). Park Sung-Sub (2001)은 기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프로세스, 정보기술과 혁신 등을 구조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Lim Gyu-Chul, 2007). Edvinsson (1997)은 구조적 자본을 기업의 조직적 차원에서 생성되는 무형자본이라 하면서 특허권과 데이터베이스, 업무 매뉴얼, 조직구조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Stewart (1997)는 어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조직구조, 특허 및 상표 등을 구조적 자본으로 분류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무형 또는 소프트웨어적 자본만이 구조적 자본이 아니라 유형 또는 하드웨어적 자본을 포함하는 것이 구조적 자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구조적자본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하부구조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객을 보다 확대하여 조직과 조직외부 관계자들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개인(individual)자본, 조직(organization)자본, 관계(relation)자본으로 구성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자본은 조직자본에, 조직자본은 관계자본에, 관계자본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개인자본과 조직자본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관계자본을 통하여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다 (Lim Gyu-Chul, 2007). 선행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인적자본, 구조적자본, 그리고관계자본 또는 고객자본(마케팅자본)을 기반으로 한다 (Moon Yun-Ji, 2007).

1)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지식은 조직 구성원 간에 공유되며 조직의 역사와 경험과 연계되어 숙련도, 역량, 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직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직의 성장이나 발전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존의 연

구들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Becker (1964)는 인적자본을 일반 인적자본(general humancapital)과 특수 인적자본(specific human capital)로 구분하였는데, 일반 인적자본은 어떤 직장이나 산업 혹은 분야에 종사하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특수 인적자본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직종이나 산업에 종사하게될 때에만 생산성이 향상되는 인적자본을 말한다. Becker (1964)에 따르면 인적자본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구별하여 노동력에 체화된 근로자의 지식이나 교육수준, 직업훈련의 정도, 근로의욕, 건강 및 영양 상태 등노동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산요소를 말한다 (Jung Byung-Ghak, 2007). Che Woo-Hyun (1998)은 인적 자본이란 기계설비 등의 물적 자본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체내에 내재하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기능, 지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고찰해해 볼 때, 인적 자본이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지식이며 교육, 훈련, 건강, 정보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객자본은 외부 고객 및 공급자와의 관계, 산업에서의 네트워크, 유통채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Park Sung-Sub (2001)은 고객충성도, 브랜드, 로열티, 시장점유율, 고객유치율, 고객당 수익률 등 고객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고객 자본이라 하였다(Lim Gyu-Chul, 2007). 즉,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 등의고객 자본은 기업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주는 귀중한 무형자본인 것이다(Lee Do-Yeon, 2000). 또한, Stewart (1997)는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되는 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트레이드마크 등을 고객 자본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으며, Lee Ho-Gil (2003)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식되는 고객유치능력과

고객가치창출을 고객 자본이라 정의하였다 (Lim Gyu-Chul, 2007). 이상의 연구들을 지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고객자본을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즉, 외부 고객이 기업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태도, 로열티, 우호성 등을 일종의 무형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은 기존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아직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비창업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는 고객자본을 지적자본의 구성요소로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 고객은 미래에 창출될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지식으로서 마케팅자본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창업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재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제품, 가격, 유통 및 촉진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마케팅 자본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인지 정도로 정의한다.

2) 구조적 자본(structural capital)

구조적 자본은 인적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조직 프로세스 및 구조, 기술이나 정보 시스템, 지식재산권, 경영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Lee Ho-Gil, 2003). Park Sung-Sup(2001)은 기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프로세스, 정보기술과 혁신 등을 구조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Lim Gyu-Chul, 2007). Edvinsson (1997)은 구조적 자본을 기업의 조직적 차원에서 생성되는 무형자본이라 하면서 특허권과 데이터베이스, 업무 매뉴얼, 조직구조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Stewart (1997)는 어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조직구

조, 특허 및 상표 등을 구조적 자본으로 분류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무형 또는 소프트웨어적 자본만이 구조적 자본이 아니라 유형 또는 하드웨어적 자본을 포함하는 것이 구조적자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구조적자본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하부구조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창업의지

사회심리학의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 본다. 즉, 행동실행의 가능성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행동실행과 관련한 지각된 사회 압력인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좋거나 나쁜 평가라 할 수 있는 태도에 영향을 받은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Lee Ji-Woo, 2000). Shapero (1981) 국가나 지역 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쇄신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Grant (1996) 창업자의 부모의 존재여부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immons (1994)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성공인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 Park Si-Sa and Sung-Il Kang (2007) 창업의지는 기업을 설립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 Yoon Bang-Seob

(2004) 부모의 성공적 역할모델의 존재는 창업의지를 높여준다. Lee Ji-Woo (2000)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인 개념이 된다 (Park Si-Sa and Sung-Il Kang,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의지는 창업자가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획득하려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7. 선행연구 검토

1) 기업가정신, 사회적자본,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여 사회적자본은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상호협력력을 촉진하는 호혜적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경제적 자원으로 앞서 정의하였다. 사회적자본은 개인 및 조직간 관계 속에 존재하며 관계는 교환을 통하여 창출된다 (Bourdieu, 1986). 이러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신뢰를 둔 호혜주의 규범에 의하여 형성되며, 이러한 호혜주의 규범

은 협력하는 행동에 기꺼이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거래비용 감소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Coleman, 1988). 한편, 기업가정신은 동태적인 환경에서 창업자가 기회를 발견하여 새로운가치를 창출하려는 혁신적, 위험감수적, 진취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창업자는 혁신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고, 동태적이고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위험감수적 행동으로 경쟁자들에 앞서서 시장을선도하는 행동이 기업가정신이다 (Yoon Ki-Chang, 2009). 기업가정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면서 사회적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즉, 사회 내의 조직간 또는 개인 간 호혜

적 규범 하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면서 혁신적, 위험감수적, 진취적 성향이 형성될 수 있고, 창업시기에 행동으로 표출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지적자본을 조직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나 스킬, 조직의 지식이나 정보, 고객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적자본은 창업 초기 기업이 기회를 발견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지적자본의 구성요소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마케팅자본은 창업자나 그 조직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개발에 동

력이 되고,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을 주며, 시장을 한 발 앞서가는 진취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의지는 창업자가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획득하려는 창업행동에 대한 의도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직장에 재직 중인 개인이 은퇴 후 창업하기에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앞서논의한 바와 같이 호혜적 규범, 신뢰,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자본을 필요로 하고, 인적자본, 마케팅자본, 구조자본 등과 같은 지적자본이 필요하며, 창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행동, 위험감수적 행동, 진취적 행동과 같은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론

1. 가설 및 연구의 모형

사회심리학의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

고 설명하는 변수로 본다. 즉, 행동실행의 가능성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행동 실행과 관련한 지각된 사회 압력인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좋거나 나쁜 평가라 할 수 있는 태도에 영향을 받은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Lee Ji-Woo, 2000).

창업의지는 창업자가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획득하려는 창업행동에 대한 의도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직장에 재직 중인 개인이 은퇴 후 창업하기에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창업의 3대 요소인 사람, 자본, 아이디어가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즉, 창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행동, 위험감수적 행동, 진취적 행동과 같은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호혜적 규범, 신뢰,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자본을 필요로 하고, 인적자본, 마케팅자본, 구조자본 등과 같은 지적 자본이 필요하며,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업가정신, 사회적자본,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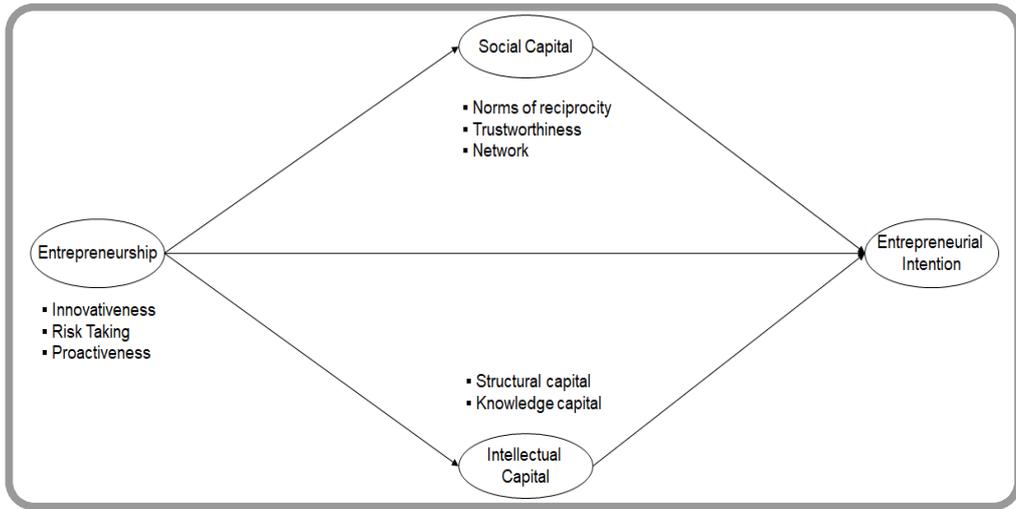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자본은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호혜적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경제적 자원으로 앞서 정의하였다. 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면식이 있고, 서로 인지하는 제도화 관계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과 결부된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체이며, 사회적자본이 불평등한 자원 내부 매커니즘을 통하여 사회 계층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Lee Seung-Bae,

2013; Park Ji-Yoo, 2014). Putnam (1993)은 사회적자본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 및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조직의 특징들이며, 사회적자본의 원천으로서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제시하고 있다 (Um Mi-Ah, 2012).

기업가정신은 동태적인 환경에서 창업자가 기회를 발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혁신적, 위험감수적, 진취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창업자는 혁신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고, 동태적이고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위험감수적 행동으로 경쟁자들에 앞서서 시장을 선도하는 행동이 기업가정신이다 (Yoon Ki-Chang, 2012). 기업가정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즉, 사회 내의 조직간 또는 개인 간 호혜적 규범 하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면서 혁신적, 위험감수적, 진취적 성향이 형성될 수 있고, 창업시기에 행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지적자본을 조직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나 스킬, 조직의 지식이나 정보, 고객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적자본은 창업 초기 기업이 기회를 발견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지적자본의 구성요소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마케팅자본은 창업자나 그 조직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개발에 동력이 되고,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을 주며, 시장을 한 발 앞서가는 진취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적자본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Fig. 1. Research Model



- H1 시니어세대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시니어세대의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시니어세대의 기업가정신은 지적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시니어세대의 사회적자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시니어세대의 지적자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 자본 및 지적 자본을 설정하였다(Fig. 1. 참조).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다수의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각 구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항목으로 측정한다. 독립변수인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 및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과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를

조작적 정의의 구성요소에 맞게 측정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리커트(Kikert) 5점 척도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의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는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는 시니어세대를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이 가운데 총 160부가 회수 되었으며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창업의사가 없는 59부를 제외한 10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검증을 위해 SPSS 22.0으로 기초분석과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은 AMOS 22.0을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12명(70%), 여성 48명(3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90명, 5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68명, 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설정한 시니어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과 어느 정

Table 1. Measuring Variables

Variable	Dimension	Measurement Item	Researcher
Entrepreneurship	① Innovativeness ② Risk Taking ③ Proactiveness	- Revolutionary mind - Suggest unique ideas or make improvement efforts - Is it creative? - Supervision of unconstitutionality - Exceptional Leadership	Lumpkin & Dess (1996); Go, Gwang-man (2012); Schumpeter (1936); Yoon, Ki-Chang (2009); Covin & Slevin (1989); Lumpkin & Dess (1996)
Social Capital	① Norms of reciprocity ② Trustworthiness ③ Network	- Society. Compliance with workplace rules - A so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a personal relationship. Workplace Importance Recognition - Distinguish between work / house and public works - Good organizational organization, misinformation - Non-compliance with social rules	Bourdieu(1986); Coleman (1988); Putnam (1993); Nahapiet & Ghoshal(1998)
Intellectual Capital	① Structural capital ② Knowledge capital	- Whether or not to acquire business information - Competence and technology presence - Price perception of the product - Marketing knowledge level	Ryu Tae-Gyu et al.(2012); Smith & Parr (2000); Park So-eun(2015);
Entrepreneurial Intention		- Challenges for entrepreneurs - Whether to collect ideas related to start-up business - Degree of entrepreneurial initiative - Degree of awareness of start-up vision - Presenting business start-ups and concrete alternatives	Oh Young-mi(2013); Vecianaet., al. (2005); Crant(1996); Shapero(1981); Timmons(1994)

도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115명, 71.875%)이 가장 많았다. 창업교육을 이수한 응답자는 52명(32.5%)으로 이수하지 않은 응답자는 108명(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측정모형의 평가

구성항목들은 4~5개의 항목으로 측정된 후, 2차확인적 요인분석(Second-order CFA)

을 실시한 후,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준화된 값을 사용하였다(Woo Jong-Pil; Bae Byeong-Yeol).

기업가정신, 사회적자본, 지적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이 각각의 요인에 0.5 이상의 값을 보임에 따라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적합하게 묶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AMOS 22.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Item	Dimension	Factor Loading	Eigenvalue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Alpha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I-1	0.863	3.937	26.245	0.924
		I-2	0.760			
		I-3	0.800			
		I-4	0.837			
		I-5	0.772			
	Risk Taking	R-1	0.773	3.690	50.842	0.893
		R-2	0.825			
		R-3	0.782			
		R-4	0.787			
		R-5	0.788			
	Proactiveness	P-1	0.850	2.826	71.392	0.840
		P-2	0.850			
		P-3	0.739			
		P-4	0.680			
		P-5	0.636			
Social Capital	Norms of Reciprocity	N-1	0.920	4.299	33.072	0.954
		N-2	0.915			
		N-3	0.927			
		N-4	0.909			
		N-5	0.825			
	Trustworthiness	T-1	0.776	2.545	52.648	0.816
		T-2	0.811			
		T-3	0.811			
		T-4	0.557			
	Network	N-1	0.730	2.396	71.077	0.743
		N-2	0.698			
		N-3	0.686			
N-4		0.702				
Intellectual Capital	Structural Capital	S-1	0.832	2.885	36.064	0.880
		S-2	0.796			
		S-3	0.817			
		S-4	0.764			
	Knowledge Capital	K-1	0.782	2.826	71.392	0.840
		K-2	0.818			
		K-3	0.721			
		K-4	0.789			
Entrepreneurial Intention	E-1	0.854	5.695	81.350	0.962	
	E-2	0.917				
	E-3	0.925				
	E-4	0.917				
	E-5	0.922				
	E-6	0.902				
	E-7	0.874				

Table 3. Assessment of Metrics Result of cfa

Variable	Item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stimate	t - value	p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0.872	-	-	-
	Risk Taking	0.572	0.081	8.052	***
	Proactiveness	0.803	0.070	13.097	***
Social Capital	Norms of Reciprocity	0.548	-	-	-
	Trustworthiness	0.803	0.226	6.482	***
	Network	0.699	0.207	6.163	***
Intellectual Capital	Structural Capital	0.856	-	-	-
	Knowledge Capital	0.745	0.078	11.167	***
Model Fitness	$X^2=54.688(df=23, p=0.000)$, $X^2/df=2.378$ GFI=0.937, AGFI=0.876, NFI=0.936, TLI=0.939, CFI=0.961, RMSEA=0.080				

분석은 측정항목의 집중타당과 요인간 판별 타당성이 충족되는 지를 검토하고, 각 변수 요인 항목에 대해 공분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항목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요인적재량은 0.6 이상,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 분산추출값은 0.5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집중타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각각의 요인적재량은 0.6 이상으로 요인적재량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각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 (Cronbach's)을 살펴보면, 모든 요인이 0.8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된다.

1차 구성항목들은 4~7개의 항목으로 측정 한 후, 2차 확인적 요인분석(Second-order CFA)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준화된 값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를 확인적요인을 정리하면 <Table 3>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t-value도 유의 수준 0.05의 t-value 1.96보다 크게 나타나 각 변수들의 타당성 분석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해 구조모형

Table 4. Result of Hypothesis Test

	Theory	Standard Estimate	S.E.	C.R.
H1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Intention	0.061	0.955	1.277
H2	Entrepreneurship → Social Capital	0.779***	0.079	6.163
H3	Entrepreneurship → Intellectual Capital	0.975***	0.072	13.398
H4	Social Capital → Entrepreneurial Intention	0.220*	0.226	1.788
H5	Intellectual Capital → Entrepreneurial Intention	-0.048	0.931	-0.060

Notes: 1. p: ***<0.01, **<0.05 and *<0.10.
 2. Model Fitness: $X^2=54.688(df=23, p=0.000)$, $X^2/df=2.378$, GFI=0.937, AGFI=0.876, NFI=0.936, TLI=0.939, CFI=0.961, RMSEA=0.080.

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지만,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06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각).

가설 2에서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779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택).

가설 3에서 기업가정신은 지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과 지적 자본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975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택).

가설 4에서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지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220으로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택).

가설 5에서 지적 자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지만, 지적 자본과 창업의지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04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각).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자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시니어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사회적자본,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조명이라는 점과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변수로서 성숙기업의 경영성과로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와 의 관계를 조명한 점은 기존 연구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집단내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사회적관계가 창업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시니어세대나 베이비부머세대의 창업의지가 창업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업가정신, 사회적자본,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의 관계를 분석해본결과 사회적자본은 창업의지에 있어서 집단 혹은 직장 내에서 의 경험, 사회적 관계는 창업의지와 연결되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알 수 있고, 지적자본만으로는 창업의 한계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여도는 상위와 같은 차이점과 특이점을 들 수 있으며 지적자본이 있어도 직접적 창업의지간의 관계보다는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자본이 함양 될 때 창업의지가 효과적인 것을 도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니어세대 창업자들은 지적자본만으로는 창업의지와 의 관계에 있어서 창업을 고려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예비창업가에게 함양될 때 비로소 지적자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세대의 창업에 있어서 직장 내 장기근속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와 의 관계에서유의하며, 따라서 시니어세대나 베이비부머세대 또는 향후 은퇴예정자의 창업에 앞서 꼭 참고할 가치가 있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점은 창업자가 창업을 결심하는 데는 단

지 지적자본 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가정신을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지적자본을 많이 구축하고 있더라도 창업의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으로 발현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로서 현재의 시점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지적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중요한 구성요소인 고객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마케팅자본으로 대체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를 참고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점은 창업자가 창업을 결심하는 데는 단지 지적자본 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가정신이 내재되어 있어도 사회적자본, 지적자본이 유기적영향관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연구의 한계점은 모집단의 설문수가 적어 전체를 대변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기업가정신과 지적자본만으로는 창업의지에 유의하지 않는 원인에 향후 연구를 더 매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New York, 241-258.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rooking, A. (1996), *Intellectual Capital*,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 Covin, J. G. and D. P. Slevin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6.
- Covin, J. G. and D. P. Slevin (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Chey, Kee-Jo (2009), *A Study on the Contributing Role of Social Capital to the Region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 Edvinsson L. and M. S. Malone (1997), *Intellectual Capital: Company's True Value by Finding Its Hidden Roots*, New York: Harper Collins Books.
- Go, Gwang-Ma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Entrepreneurship/Social Capital*,

-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vergence Federation in Small and Medium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30-31.
- Jung, Byung-Ghak (2007), *Studying Economic Growth and Role of Human Capital and Case Study of Korea*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ang, Byung-Oh, Jin-Soo Kim and Sung-Sik Ahn (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f Franchisor's CEO on Franchisor's Performance",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15(4), 87-117.
- Ryu Tae-Gyu et al. (2012),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Domestic Knowledge Capital and Patent*, KIPO Report,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 Kang, Young-Gyu (2010), *A Study on How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ffects Strategic Orientation Based on Corporate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Kim, Yong-Hak (2007), *Social Network Analysis*, Park Young-sa.
- Kim, Young-Ki and Seung-Woo Han (2015), *Startups and Management*, Book Publishing Co.
- Kim, Ju-Cheol (2016),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for Start-Ups* (Doctoral Dissertation), Paicha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im, Gyu-Chul (2007), *A Study on How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Hotel Industry the Intellectu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Master Thesis), Kyungwoon University.
- Lee, Soon-Jae (2014), *An Empirical Study and Factor Analysis of Start-up Quality for Senior's Successful Start-up*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 Lee, Seung-Bae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Social Capital on Start-up Performances mediated by Nascent Entrepreneur's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Lumpkin, G. T. and G. G. Dess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ok, Young-Doo (2011), *Study on the Development Model of the Curriculum for Start-up Education in Universiti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Moon, Yun-Ji (2007), *The Effect of Intellectual Capital(IC)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IC Antecedents and IC Consequences* (Doctoral

-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Moon, Young-Ju (2011), "A Study on Social Capital Scale Composition and Its Application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Studies*, 42(3), 381-407.
- Nahapiet, J. and S. Ghoshal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Park, Ki-Yong (2009),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in the Foodservice Industry",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5(3), 153-165.
- Park, Si-Sa (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Tourism Studies*.
- Park, Ji-Yoo (2013),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Culture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Schumpeter, J. A. (1936),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oh, Jin-Kwang (2004), "Toward Developing Social Capital Indica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gional Development*, 16(1), 89-118.
- Song, Kyung-Ryeol and Jong-Gwan Kim (2011), "The Influence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on Intellectual Capital and Innovative Capabiliti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8(3), 105-127.
- Stewart, T. A. (1997), *Intellectual Capital: The New Wealth of Organization*, New York : Currency Double Day.
- Schumpeter, J.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 Timmons, J. (1990), *New Venture Creation*, Irwin. Homewood.
- Roos, J., G. R. Nicola, C. Dragonetti and L. Edvinsson (1998), *Intellectual Capital: Navigating in the New Business Landscap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Um, Mi-Ah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Employment of the Aged -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tudies, Seoul, Korea.

Uslaner, E. M. and M. Brown (2005), "Inequality, Trust, and Civic Engagement", *American Politics Research*, 33(6), 868-894.

Yoon, Ki-Chang (2009),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Degree of Globalization of Born Global Venture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oundt, M. A., M. Subramaniam and S. A. Snell (2004), "Intellectual Capital Profiles: An Examination of Investments and Return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1(2), 335-361.